
 <b>報道資料</b> [2011.11.21.]	<b>문화재청 50년,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b>		 <b>문화재청 50주년</b> 50th Anniversary of CHA	
	<b>보도시점</b>	<b>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b>		
	<b>담당부서 (전화번호)</b>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02-3701-7631/7635)		
	<b>담당자 (e-mail)</b>	박대남(chpdn@korea.kr) 박윤희(yooni@ocp.go.kr)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정책정보」에 동시게재				

## ‘하정웅 기증전 - 순종 황제의 서북 순행과 영친왕 · 왕비의 일생’ 특별전 개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재일교포 하정웅 선생의 자료 기증을 기념하는 ‘하정웅 기증전 - 순종 황제의 서북 순행과 영친왕 · 왕비의 일생’ 특별전을 오는 11월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하정웅 선생(1939~)은 영친왕비의 사진, 서신류 유품 610건을 2008년 12월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기증했으며 국립고궁박물관이 이를 인수해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됐다. 기증자 하정웅 선생은 일본 오사카(大阪) 출신의 재일교포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로, 1974년 봄 창덕궁 낙선재에서 미술품 바자회를 준비하던 영친왕비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 후 오랫동안 영친왕비와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영친왕비 사후 그가 남긴 유품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순종황제의 서북 순행』 사진첩과 영친왕 휴대용 수첩, 영친왕비 일기 등이 처음으로 전시된다. 『순종황제의 서북 순행』 사진첩은 1909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순종 황제가 당시 남대문역(현 서울역)을 출발하여 평양, 신의주 등 한반도 서북지역을 순행한 전체 일정을 사진으로 기록한 것이다.

영친왕 휴대용 수첩은 영친왕이 일본을 비롯한 유럽, 미주지역을 순방하며 개인적인 소견을 기록한 것으로, 일본,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농업의 중요성 등에 대한 생각이 엿보인다. 또, 영친왕비의 일기는 1919년 한 해 동안 쓴 것으로, 결혼을 한 해 앞둔 신부로서의 설렘과 영친왕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밖에도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영친왕 부부의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사진 100여 점이 함께 전시되어 영친왕과 왕비의 일생을 엿볼 수 있다.

기증자료 이외에도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영친왕비가 창덕궁 낙선재에서 사용했던 가구와 생활 소품, 직접 만든 자수병풍과 회화도구 등도 함께 전시된다. 이 유품들은 1989년 영친왕비 사후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전시와 함께 기증자의 특별강연이 개최되며, 관람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3701-7631, 7635) 또는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www.gogu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전시안내>

#### 특별전시

- 전시제목 : 하정웅 기증전 - 순종황제의 서북순행과 영친왕·왕비의 일생
- 전시기간 : 2011.11.22(화) ~ 2012.1.31(화)
- 전시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1층 전시실

#### 특별강연

- 강사 : 기증자 하정웅 선생
- 주제 : 기증자와 영친왕비와의 인연 및 기증 자료에 대하여
- 일시 : 2011.11.22(화) 14:00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붙임 : 대표 전시자료 사진 1부. 끝.

<붙임> 대표 전시자료 사진

<순종황제의 서북순행>



그림 1 순종황제가 임시로 머무는 평양행재소 전경(1909년1월27일)



그림 2 정주역에 마중 나와 있는 신하들(1909년 1월 31일)



사진 3 의주, 신의주를 돌아 다시 평양에 도착해 만수대 정상에서 기념촬영(1909년 2월 1일)  
태극기와 일장기를 게양하고 양복을 입은 순종이 가운데 서 있다.



사진 4 개성 만월대 관람(1909년 2월 3일)



사진 5. 서북순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순종황제를 기다리는 환영인파(남대문역, 1909년 2월 3일)



사진 6. 서북순행을 마치고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 앞에서 순행에 참여한 수행원들과 기념촬영(1909년 2월 4일)

<영친왕·왕비의 일생>



사진 7 목마를 탄 영친왕, (1900년대)



사진 8 큰아들 이진(1세)을 안고 바라보는 영친왕 부부(1921년)



사진 9 영친왕비의 작품 제작 장면(1970년대)

영친왕비는 작품 활동을 통해 모금한 돈으로 명회원 등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였다.



사진 10 영친왕 수첩  
영친왕이 일본을 비롯한 유럽, 미주의 정세 등에 관한 개인적인 소견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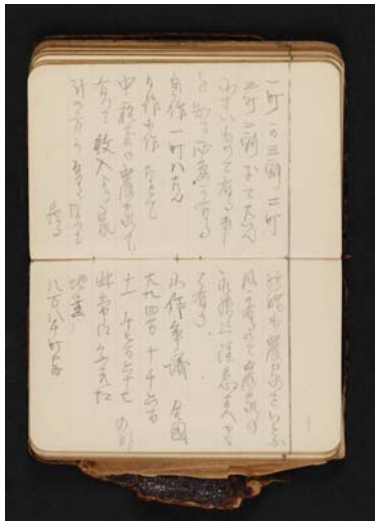


사진 11 영친왕 수첩 메모  
<번역>“일본의 교육은 모방, 수입교육이다. 제도, 방법도 모두 서양교육과 닮아있다. 국민의 성장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서양것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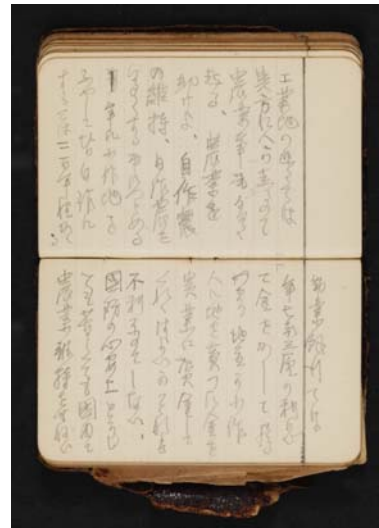


사진 12 영친왕 수첩 메모  
<번역> “...농업을 구하자. 자작농의 유지, 자작농을 늘리는 일에 힘쓰다. ....국방 필요상 힘들어도 국내에서 농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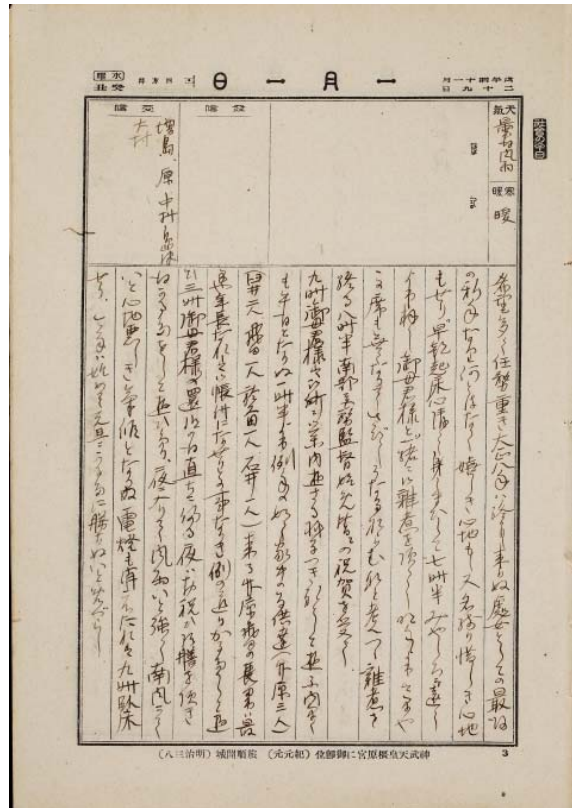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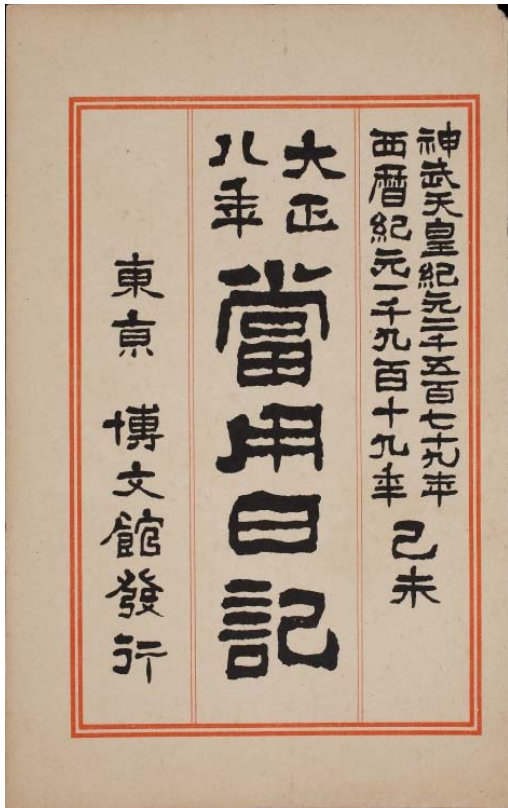


사진 13 영친왕비 일기

영친왕비가 영친왕과의 결혼을 한해 앞둔 1919년에 쓴 것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서의 설레임과 영친왕에 대한 연민 등을 사실적으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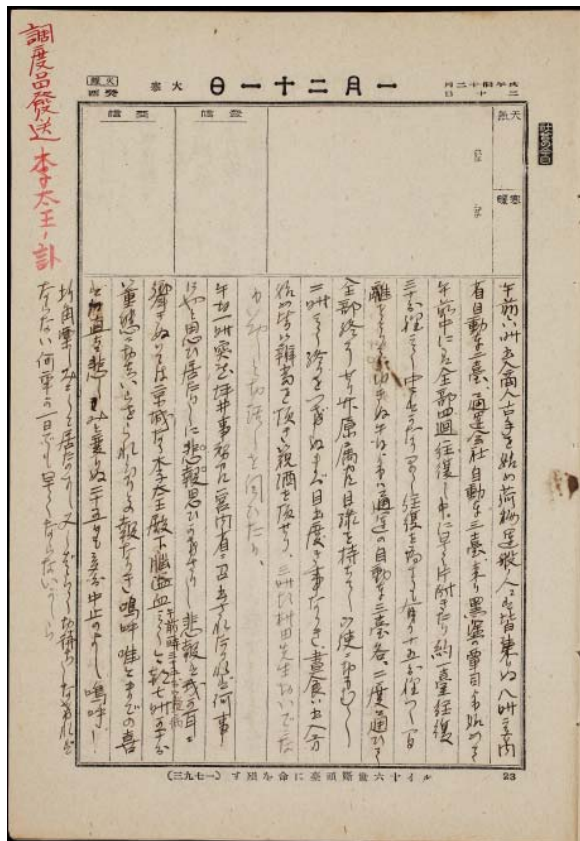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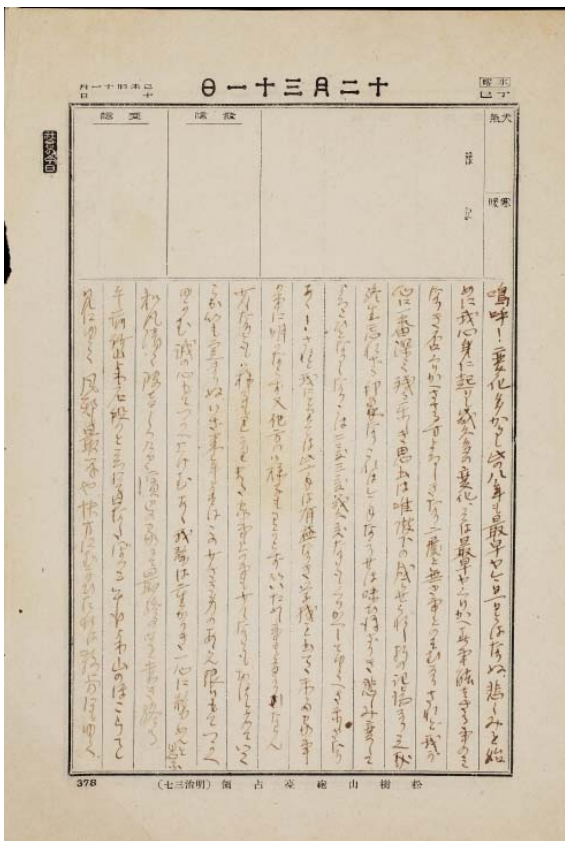


사진 14 1919년1월21일자 일기  
 “오후 1시 … 비보, 생각하지 못한 비보가 내 귀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경성에 계시는 이태왕(고종)전하께서 뇌일혈로 오전 1시 35분에 발병해 오전 7시 중태에 빠지셨다는 보고였다. 아아, 지금까지의 기쁨은 이내 슬픔으로 변했다.”

사진 15 1919년 12월 31일자 일기  
 “아아! 변화가 많았던 다이쇼(大正8년, 1919년)도 이제 오늘 하루 남았다. … 내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즐거운 추억은 오직 전하께서 오셨을 때의 기억이다. 이것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상이다, 이것은 올해가 아니면 맛볼 수 없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던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사진 16 영친왕비가 사용했던 붓과 물감안료, 국립고궁박물관



사진 17 영친왕비 자수병풍, 국립고궁박물관